

단 신

공동체 행복지킴이 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5월 8일 지부 회의실에서 지회 여성회장 등 봉사단원,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공동체 행복지킴이를 위한 센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지부는 5월 7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시지부 사무처장 및 직원, 봉사단장 및 구군지회 봉사단원 등 20명이 참석해 공동체 행복지킴이 운영방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어르신 방문 봉사
부산 사상구지회는 5월 7일 여성회장과 총무, 사무국장이 지역내 홀몸노인 가정을 방문, 물품을 전달하고 미용을 도와줬다.

도지부 임원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5월 4일 도지부 회장실에서 지부(회) 회장, 사무처(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중인 분회 구성방안과 상반기 주요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임원 간담회를 실시했다.

어린이날 기념품 전달
부산 금정구지회 부곡2동분회는 5월 4일 부곡2동 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센터 아동들을 위한 미술화구 전달식을 가졌다.

코로나 극복 현수막 게시
부산 사하구지회 당리동분회, 괴정동분회, 신평1동분회, 다대1동분회는 4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수막을 게시했다.

부산 동래구지회와 청년회는 4월 28일 동래 유엔아이아파트 앞과 복천동 고분앞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현수막을 각각 1부씩 게시했다.

시산제 및 제26차 정기총회

| 부산광역시지부 |

부산광역시지부(회장 양재생) 자유산악회(회장 이형도)는 회원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0일 시자유산악회 2020년 시산제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시산제는 산악회의 한 해 동안 안녕을 기원하고 정기총회에는 2019년 산행실적 및 결산과 2020년 산행계획을 승인하고, 신입

간부 임명장 수여, 모범회원 표창패 수여 및 2019년 개근 회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지부 류재호 사무처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0여일 간 노력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와 함께 완전한 종식까지 생활방역에 더욱 더 노력하자며 격려했다.



민주시민교육 원격교육으로 시행

| 부산광역시지부 |

부산광역시지부(회장 양재생)는 5월 8일 2020 국민민복 민주시민교육을 동의중학교 전교생 285명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으로 첫 시행된 교육은 각 학년별로 구분해 남북한 실상

과 통일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실시됐다. 참여자들은 최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경험해 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공감했으며, 코로나19 종식으로 대면 교육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 부산 진구지회 |

부산 진구지회(회장 허혁필)는 지난 5월 7일 허혁필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5월 정기월례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3~4월 주요 활동을 공유하고 5월 지회 일정 및 전반적인 운영 방향 토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방역활동을 지속하면서 부산 진구지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공동체 행복지킴이센터 회의

| 부산광역시지부 |

부산광역시지부(회장 양재생) 어머니포순이봉사단(단장 신희선)은 5월 7일 시지부 회의실에서 신희선 부산시 봉사단장과 구군지회 봉사단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지킴이센터 회의 개최 및 성품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복지킴이센터 회의에서는 지역별 수혜자에 대한 성품을 지회 봉사단장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전달된 성품은 부산 16개 구군의 봉사단장과 봉사자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근대산업 여성근로자 기념비 제막 행사

| 부산 진구지회 |

부산 진구지회 여성회(회장 김경자)는 지난 4월 21일 진구 진양사거리에서 부산 진구청장, 자총 부산진구 여성회 김경자 회장 등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근대산업 여성근로자 기념비 제막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역 신발산업 여성노동자들의 자랑스런 삶과 노동의 현장을 기리기 위해 진구 진양사거리 한 복판에 신발조형물 작품과 기념비를 설치해 근대화의 주역이었던 신발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애환을 되새기고 그 뜻을 기억하는 자리가 됐다.

